



어느새 가을하늘

무더위가 가시고 선선한 날씨를 보인 26일 광주시 남구 사직공원 전망대에서 바라본 파란 하늘이 가을의 문턱임을 느끼게 한다. 이날 광주 낮최고기온은 28.4도였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목포 평화광장 앞 갈치 낚시 올해도 못하나

‘해상인명사고 위험지역’ 지정 2년... 안전대책 못세워

해수청 “조건부 가능”·市는 난색... 내일 대책회의

가을 밤, 목포 평화광장 앞 바다에서 낚시배를 타고 은갈치를 낚는 ‘재미’를 누릴 수 없게 됐다. 관할 행정기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올 해 가을밤 바닷바람을 맞으며 갈치 낚시를 즐기는 낭만적인 체험 기회는 포기해야 할 처지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목포항 관리주체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갈치낚시어선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목포시의 소극적 행정으로 대표적 관광 상품을 망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두 기관은 해당 구역이 해상인명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뒤 2년이 되도록 적절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다.

2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 목포항 내 평화광장 인근 수역을 ‘대규모 해상 인명사고 위험 지역’으로 지정했다. 예년 가을 밤 바다를 환하게 밝혔던 갈치잡이 낚시배들은 지난해부터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서 단속 및 정비 대상으로 내몰렸다.

해수청은 이 일대 갈치낚시배 등 불법 시설물 정비에 들어갔고 목포해경안전서도 지난해 15건의 갈치낚시터법 위반 혐

의를 적발하는 등 단속이 나섰다. 이 후 밤 바다에 떠있는 낚시배들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목포시에 등록된 70척의 갈치 낚시어선 선주들은 생존권 등을 들어 올해는 평화광장 앞 바다에서의 낚시를 허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25일 목포시청 앞에서 ‘갈치낚시 허가촉구 시정 항의방문’을 계획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해수청의 경우 선박의 입·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관리 무역항인 목포항에서의 어로·낚시행위는 불가하지만 목포시가 충분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다면 예외적으로 ‘항계(항만경계)내 행사’ 방식으로 허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목포시는 그러나 어두운 밤 시각, ‘해상인명사고 위

험지역’인 평화광장 앞 바다로 몰리는 관광객들에 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갈치낚시 체험을 허가하는 데 부정적이다.

앞서 해수청은 낚시어선 수, 조업시간·어선관리 등 관리 현황과 안전 대책을 수립한 영암군에 대해 상호방조제 일대에 서 8월 14일~12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갈치낚시 허가를 내준 바 있다. 목포시와 해수청은 오는 28일 대책회의를 열고 갈치 낚시 허가 여부를 논의하기로 해 ‘해상인명사고 위험지역’내 갈치낚시 허가 여부가 어떻게 처리될 지 주목된다.

한편, 해수청은 다음달 1일 개항장 내 불법 어로·낚시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시작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1 해질 17:02
해짐 19:07 달짐 02:54

가을 날씨
기압골의 영향으로 일부 내륙지방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우량 5mm 내외.

◇지역별 날씨(℃)

광주	호리고비	20/27	보성	구름맑음	18/27
목포	구름맑음	20/27	순천	구름맑음	20/29
여수	호리고비	21/27	영광	비온뒤맑	21/27
나주	구름맑음	19/28	진도	구름맑음	20/27
완도	구름맑음	21/28	진주	비온뒤맑	20/27
구례	호리고비	19/28	군산	비온뒤맑	21/27
강진	구름맑음	18/27	남원	호리고비	18/27
해남	구름맑음	19/28	홍산도	구름맑음	21/25
장성	호리고비	19/27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서해	남해	남서~서	0.5~1.0	남서~서	0.5~1.0
남부	남해	남서~서	0.5~1.5	남서~서	0.5~1.5
남해	남해	서~북서	0.5~1.0	남서~서	0.5~1.0
남해	남해(동)	서~북서	1.0~1.5	남서~서	0.5~1.5
서부	남해(서)	서~북서	1.0~1.5	남서~서	0.5~1.5

◇생활지수

- 식중독: 주의
- 운동: 40
- 빨래: 60

◇물때

		밀물	썰물
목포	11:44	05:30	
	23:39	17:28	
여수	06:54	01:07	
	19:44	12:55	

◇주간 날씨

28(금)	29(토)	30(일)	31(월)	9/1(화)	2(수)	3(목)
☀	☀	☁	☀	☁	☀	☀
20/29	21/30	22/27	21/29	22/27	22/29	22/29

‘5·18외곡’ 지만원씨 검찰에 고소키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평위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한 혐의로 지만원(73)씨를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1987년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제작한 5·18 사진자료집을 복간과 내용에 대한 자료인 것처럼 비방한 지씨를 기소할 유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오는 31일 광주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정평위는 31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고소장 제출시 5·18 단체, 5·18기념재단, 광주지방 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등 관계자들이 동행할 예정이다.

고소인은 1980년 당시 정평위 일원이었던 정형달 신부와 1987년 사진자료집 제작 당시 정평위원장이었던 남재희 신부, 사진자료집 제작과 배부 실무를 총괄했던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안호석 신부, 이영선 신부 등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통화하며 빨간불 횡단 보행자 100% 과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전화통화를 하면서 부주의로 적색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100% 본인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사고를 당한 A씨의 요양급여를 내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고 차량 운전자 B씨와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시 A씨는 넘어지면서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8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로 4300만원을 부담하고 A씨 본인은 920여만원을 부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운전자 B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며, A씨의 치료비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은 차량 운전자 B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역시 공단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교사 성범죄, 지방경찰청이 전담 수사

경찰청은 26일 ‘학교 내 성폭력 예방 강화 대책’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학교장이나 교감에 의한 성범죄이거나 ▲피해 교사나 학생이 5인 이상 ▲다수 피의자가 연루된 사건은 관할 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수사를 맡도록 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성법)의 가중처벌과 신고의무 위반 조항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아성법

은 교사와 같은 특수직 종사자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런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교원의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이내라는 것을 감안, 학교 내 성범죄 사건 수사는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세월호 희생자 ‘어묵 비하’ 일베 회원 실형

수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심재남)는 2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일베리스트 회원 김모(20)씨와 조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1월26일 수원시 한 PC방에서 단원고 교복을 입고 ‘어묵’을 먹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뒤 ‘친구를 먹었다’는 제목으로 일베리스트 게시판에 올려 희생자와 생존학생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씨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해 단원고 교복을 구매한 뒤 해당 사진으로 촬영했으며, 조씨는 김씨와 공모해 사진 게재시간 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 측은 “단원고 교복을 샀다는 김씨에게 조언한 것에 불과하고 사진과 글의 내용이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1심의 형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금리 부담은 낮게, 대출은 쉽게!

앞으로의 금융

광주문화신협, 북광주신협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담보감정 평가 수수료 면제

당신에게 딱 맞는 대출 상품이 필요할때!

북광주신협 572-8167

아파트 담보대출 (특별금리상향)

최저금리 적용으로
감정가 최고 80% 까지 가능
추가 신용대출 가능

상가 담보대출

빌딩, 단독상가, 아파트상가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로
신용에 따라 상가대출+신용대출 까지~
대출금리: 특별 우대금리 · 대출한도: 최고 50억

자영업자와 직장인을 위한 신용대출

간단한 대출 절차로
최고 7천만원 까지 가능

정부 보증부 서민대출 햇살론

사업운영자금 최고 2천만원
창업자금 최고 5천만원
생계자금 최고 1천만원

지역업체(무담보/무보증) 승승장구론

개인(창업) · 임대사업장 최대 2천만원
자금대출 · 자가사업장 최대 3천만원
운영자금대출 / 최대 한도 7천만원

아파트 임대보증금대출

전세 보증금
최고 80% 까지 가능

문흥본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블루밍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